



겨울, 2008 캔버스에 아크릴, 87X60.5cm, 김덕기 작

수고했어요 2011년 흰색이 주는 평온함 마무리 돕는다

“또 한 해가 끝났구나.” 한 장 남은 달력이 말해준다. 시간은 하루, 한 주, 한 달, 한 해로 나뉜다. 이런 시간의 흐름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시간과 일치한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일 년에 한 번,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에 인생을 좀 더 깊이 생각 하면서 지난 시간을 회고한다.

2011년 10대 뉴스 정리하기, 연말 시간 관리하기

연말은 축제다. 학교는 방학하고 직장인들은 송년회에 종무식에 연말 분위기에 편승해 들뜬 마음 감출 길이 없다. 이맘때 들려오는 캐럴에도 발걸음이 가볍다. 눈이라도 내리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이제, 연말에 해야 할 것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다독이며 마무리하는 것이다. 수고한 일 년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는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는 것이다. 언론사에서 연말 선정하는 10대 뉴스처럼 개인이나 조직도 올해 있었던 10가지 뉴스를 만들어보자. 뉴스를 꼽다 보면 지난 한해 무슨 일을 했으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가 될 것이다. 이 같은 정리는 2011년 마무리와 함께 2012년 새해 계획을 세우는데 밑거름이 된다. 둘째는 연말 시간 관리다. 분명 새해가 시작할 때 계획했던 목록이 있을 것이다. 지킨 것도 있을 것이고 지키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인데, 우선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목 공동체에서 자신이 할 일의 목록을 정리해본 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시간을 배분한다.

세상이 흰 눈에 덮이는 날 마음의 평정이 찾아왔다. 아직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그래서 준비한 작품은 김덕기 개인전, ‘차가운 겨울 너머로’ 작품이다. 가족과 연인을 한 아름 담고 있는 그의 작품은 일 년 수고한 자신을 위로하고 새롭게 선물 받을 2012년을 기대하는데 제격인 작품이다.

그의 작품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다. <경이로운 색채치료법>의 저자 카시마 하루키는 ‘흰색은 평온함과 순수함을 더하며, 마음의 평정을 되찾아 주는 색’이라고 정의했다.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시점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정이 아닐까.

흰색이 주는 평온함과 함께 2011년을 다시 기억해보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일을 떠올려 보고 작은 성취에도 만족하며 스스로 축하하자. 열심히 살아낸 2011년을 사랑하자. 멀리서 찾기보다도 가까이에서 부터 찾아보자. 그리고 또다시 선물로 찾아올 2012년을 기대하자.

김덕기 작가의 작품은 롯데갤러리에서 내년 1월 2일까지 감상할 수 있다. **MEDI** CHECK